

## 37장.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연합

### 1. 마른 뼈의 회복 (37:1-14)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3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이 환상은 여호와와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만 있는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그러한 뼈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의 비참한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누구의 뼈인지도 알 수 없고, 이제 가루가 되어서 흩날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과 같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한 민족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마른 뼈는 이제 가루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에스겔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또한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였을 때에 여호와와 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알려 주셨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지고 멸절되었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무덤을 열고서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그것은 여호와와 영을 그들의 속에 두심으로써 이루신 일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처음 창조와 같은 방식으로, 곧 먼저 빚고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들이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 2. 통일의 회복 (37:15-28)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한 목자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은 유다의 막대기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함께 붙여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서 '막대기'는 그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납작한 '나무 조각'을 가리킬 것이다. 두 나무 조각에 글을 쓴 다음에 두 조각을 나란히 두는 것과 비슷하다.) 두 나무판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한 후에 두 나무판을 하나로 연합시켰다. 남조와 북조가 모두 '이스라엘'임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시고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 본문에서 '하나'라는 말이 열한 번 나올 정도로 이 사실이 강조된다(16(x2), 17(x4), 19(x2), 22(x2), 24). 하나님의 손에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고, 한 목자와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지킬 것이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쫓겨났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회복시킬 것이다.